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세계 최강 한국 바둑 전종목 석권

혼성 복식 이어 남·여 단체전 '동반 금메달'

신안출신 이세돌, 전주 출신 이창호, 광주 출신 박정환, 여수출신 이슬아 등이 이끈 한국 바둑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 치러진 바둑 종목에서 혼성복식에 이어 남녀 단체전을 싹쓸이했다.

한국은 26일 중국 광저우기원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안게임 바둑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이창호(35)-강동윤(21)-이세돌(27)-박정환(17)-최철한(25)이 출격해 구리-류싱-쿵제-셰허-저우뤄양으로 맞선 중국 대표팀에 4-1로 낙승을 거뒀다.

또 여자단체전 결승에서는 이민진(26)-김윤영(21)-조혜연(25)이 나서 중국의 루이나이웨이-송룽후이-탕이에게 2-1로 짜릿한 승리를 낚았다.

지난 22일 혼성복식 우승에 이어 남녀 단체전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 걸린 금메달 3개를 싹쓸이하며 바둑 최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남자대표팀은 예선리그에서 중국을 4-1로 제압했지만 중국이나 한국 모두 초일류 기사들이 총출동한 만큼 결승전 승부를 예측할 수 없었다.

제한시간 1시간에 초읽기 3회로 진행되는 비교적 속기 대국에서 한국에 가장 먼저 승전보를 알린 선수는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 이창호였다.

구리를 상대로 초반부터 미세한 우세를 지킨 이창호는 197수 만에 우상변 백 대마를 포획해 첫 승리를 알렸다.

하지만 믿었던 이세돌이 중국 랭킹 1위 쿵제와 대결에서 패하고 말았다.

승부의 향방을 좀처럼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동윤이 류싱에게 불계승을 거뒀고 최철한 역시 저우뤄양에게 항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선수단은 단체전 금메달의 기쁨에 휩싸였다.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인 박정환도 셰허와 288수 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여유있는 6집 반 승을 거둬 한국의 우승을 자축했다.

다소 열세가 예상됐던 여자 대표팀은 놀라운 투혼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냈다.

혼성복식에서 동메달을 땄던 김윤영이 송룽후이에게 승리했지만 에이스 조혜연이 탕이에게 무너져 1승1패가 됐다.

가장 오래 진행된 이민진과 루이나이웨이의 대국 역시 불리하다는 소식이 전해져 금메달이 물건너가는 듯했다.

하지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 최강전'에서 한국의 수문장을 맡아 두 차례나 우승을 견인했던 이민진은 불리했던 바둑에 끈질긴 투혼을 발휘하며 기적처럼 끝내기에서 1집 반 앞세워 짜릿한 역전승을 견인했다.

혼성복식에서 우승했던 박정환과 이슬아(19)는 이번 대회 2관왕에 오르며 바둑 최초로 연금 점수 20점을 획득해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을 받게 됐다.

양재호 바둑 대표팀 총감독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에서 2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3개 모두를 딸 줄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감격의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

26일 중국 광저우 체스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바둑 단체전 결승에서 한국 이창호가 중국 구리와 대국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리듬체조 '얼짱' 손연재 시대 '활짝'

26일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타운 체육관에서 열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개인전에서 한국의 손연재가 아름다운 공연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종합서 첫 동메달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6·세종고)가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버금가는 값진 동메달을 땄다.

손연재는 26일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타운 체육관에서 열린 개인종합 결승에서 줄(26.900점)-후프(27.000점)-볼(27.450점)-리본(27.100점) 4종목 합계 108.450점을 받아 3위를 차지했다.

1994년 히로시마 대회부터 리듬체조가 정식종목이 된 이래 한국은 1998년 방콕 대회와 2002년 부산 대회 팀 경기에서 동메달을 거푸 땄지만 개인종합에서 메달을 획득하기는 손연재가 처음이다.

이 종목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일찍부터 세계적인 강호로 자리매김해 온 강국이 많아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맥을 캐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손연재가 가져온 동메달이 더욱 귀하다. 금메달과 은메달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7위와 12위를 차지했던 안나 알랴브예바(111.450점·카자흐스탄)와 울리아나 트로피모바(109·450점.우즈베키스탄)에게 돌아갔다. 한편 신수지(19·세종대)는 4종목 합계 102.150점에 머물며 10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여자 배구 16년만에 金 노린다

오늘 아시아 최강 중국과 결승전

'4년 전 도하 악몽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만리장성을 허물고 아시아 정상에 오르겠다.'

한국 여자 배구가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열리는 27일 오후 3시 광저우 체육관에서 중국과 결승전을 벌인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때 '복병' 태국과 8강에서 1-3으로 지는 바람에 아시안게임 출전 사상 처음으로 '노메달 수모'를 겪었던 태극낭자들이 광저우 대회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며 부활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획득했던 여자 배구는 아시안게임에서도 1962년 자카르타 대회 은메달을 시작으로 줄곧 메달을 땄고 1994년 히로시마 대회 때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사냥했다.

1998년 방콕 대회와 2002년 부산 대회에서 중국과 결승 대결에서 잇달아 덜미를 잡혀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던 한국은 4년 전 도하 대회에선 중국과 일본, 대만, 태국에 뒤져 5위까지 추락했다. 아시안게임 출전 사상 44년 만의 노메달이었다.

당시 '도하 굴욕'을 경험했던 김연경(일본 JT마블러스)과 한송이, 김사니(이상 흥국생명), 황연주(현대건설), 한유미(대한배구협회), 정대영(GS칼텍스)이 중국 격파의 선봉에 선다.

대표팀 주축인 이들은 지난 18일 조별리그 첫 경기 상대였던 태국을 3-0으로 완파하며 4년 전 패배를 시원하게 되갚았다. 당시 주포 자존심을 구겼던 김연경이 태국과 경기에서 21점을 사냥했고 베테랑 세터 김사니는 정교한 토스로 승리를 뒷받침했다.

이제 마지막 결승에서 맞붙는 상대는 아시아 최강 위용을 뽐내는 개최국 중국이다.

1998년 태국 대회부터 2006년 도하 대회까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독차지했던 중국은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까지 우승해 대회 4연패 위업을 달성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중국은 국제배구연맹(FIVB) 세계랭킹이 3위로 21위인 한국보다 18계단이나 높고 이번 대회 직전까지 한국과 역대 상대전적도 55승11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한국이 이달 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중국을 3-0으로 완파하기 전까지 8년 동안 15연패를 당했을 정도로 중국의 벽은 높았다.

하지만 사정은 달라졌다.

한국 여자 배구 사상 최고의 스파이커로 꼽히는 김연경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화끈한 득점력을 뽐내는 한편 '좌우 쌍포'를 이룬 라이트 황연주도 부상 후유증을 털고 맹활약하고 있다.

박삼용 여자 대표팀 감독은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의 우승은 우리 모든 선수의 간절한 소망이다. 마지막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 반드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여자농구 중국에 져 은메달

한국 여자농구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임달식(신한은행)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5일 중국 광저우 인터내셔널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광저우 아시안게임 농구 여자 결승 중국과 경기에서 64-70으로 분패했다.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우승 이후 1998년 방콕에서 3위, 2002년 부산에서 2위, 2006년 도하에서 4위를 기록해 16년 만에 금메달 탈환을 노린 한국은 경기 내내 중국과 근소한 점수 차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끝내 만리장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변연하가 혼자 23점을 넣었고 박정은 14점, 신정자는 12점을 기록하며 분전했다. /연합뉴스

김도원 공수도 남 75kg급 동메달

공수도 기대주 김도원(20·광주송원대)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에 세 번째 메달을 안겼다.

김도원은 26일 중국 광저우 광둥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공수도 대련(구미테) 남자 75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은구엔 민 풍(베트남)을 4-3으로 힘겹게 누르고 동메달을 땄다.

지난 7월 몬테네그로에서 열린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땄던 김도원은 부전승으로 16강에 올라 아랍에미리트(UAE)의 모하마드 압둘마지드 타헤르를 9-1로 가볍게 꺾었지만 8강에서 후앙하오윤(대만)에게 3-6으로 져 패자부활전에 나섰다.

김도원은 패자부활전 첫 판에서 레옹 친 이아오(마카오)를 7-3으로 꺾고나서 은구엔 민 풍마저 제압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女핸드볼 카자흐스탄 꺾고 동메달

한국 여자핸드볼이 광저우 아시안게임 3~4위전에서 이겨 동메달을 차지 했다.

한국은 26일 중국 광저우 광궁체육관에서 열린 카자흐스탄과 3~4위 결정전에서 38-26으로 대승을 거뒀다.

전날 일본과 준결승에서 28-29로 져 6회 연속 우승이 좌절된 한국은 분풀이라도 하려는 듯 우선희(삼척시청), 김온아, 유은희(이상 벽산건설)가 나란히 8골씩 터뜨리며 카자흐스탄을 경기 내내 몰아세웠다. /연합뉴스

박태환 MVP 꿈 무산
中 배드민턴 린단 수상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1·단국대)의 아시안게임 사상 첫 2회 연속 최우수선수상(MVP) 수상 꿈은 아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중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 린단(27)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별 중의 별'에 올랐다.

이번 대회 배드민턴에서 남자 단식과 단체전에서 우승해 2관왕에 오른 린단은 26일 오후(한국시간) 중국 광저우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삼성MVP 어워드' 행사에서 대회 MVP로 뽑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건 린단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정상에 오른 타우픽 히다야트(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남자단식을 모두 제패한 선수가 됐다.

박태환은 린단을 비롯해 류샹(육상), 쑨양과 탕이(이상 수영) 등 중국 선수 4명과 함께 최종 후보 다섯 명에 포함됐지만 2회 연속 수상에는 실패했다.

삼성 MVP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부터 시상해 올해로 4번째를 맞았는데 배드민턴 선수로는 린단이 첫 수상자다.

1998년 방콕 대회에서는 일본 육상 단거리 스타 이토 고지, 2002년 부산 대회에서는 일본 수영 영웅 기타지마 고스케가 MVP로 뽑혔고, 2006년 도하 대회에서는 박태환이 수상했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쳐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